

가축대란 육식문화가 불러드린 재앙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광우병, 구제역 그리고 최근 식약청이 발표한 곡류, 육류, 생선 의 다이옥신 잔류농도는 분명 <식탁테러>에 해당한다. 오늘의 <가축대란>이 얼굴없는 <바이오 침략>으로까지 인식되면서 식량안보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바이오 침략의 실체는 그 개념조차 불명확하지만 그 파급속도 피해규모가 핵공격을 능가할 정도로 위협적이기 때문이다(한국일보 2001.2.13) 라는 것이다.

이 논지에 의하면 바이오침략자가 마치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되어있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가축대란은 현세대가 향유하고 있는 육식문화가 불러드린 재앙이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오늘의 가축대란의 원인을 공장형 축산으로서 대규모, 저비용 그리고 생육 촉진방법을 쓰고 있는데서 찾고 있다. 문제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있다.

구미국가에서 비롯된 육식문화가 인류문명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는 가축대란으로 인한 공포가 오늘처럼 크게 부각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터였다. 식량경제학자인 프란시스 무어는 '곡식을 먹여 키운 고기중심의 식생활체계는 자원(물, 곡식, 에너지 등)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환경(열대우림 훼손, 지구온난화 등)을 파괴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한다. 쇠고기의 대량생산 및 소비는 지구환경, 세계경제, 식량문제 그리고 인간의 건강문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92년도에 출판된 <탈쇠고기문화>의 저자 제레미 리프킨은 쇠고기문화의 윤리성을 따진다. 곡물이 사료(1kg 쇠고기생산에 7kg의 곡물 소요)인가, 식량인가라는 문제가 앞으로 세계의 중대한 정치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쇠고기문화가 세계인구의 5명중 1명을 굶주리게 하는 한편 그만한 수의 사람들은 육식으로 인한 질병으로 죽게 한다고 비난한다. 그의 저서는 쇠고기를 통해서 근대문명을 비판한 것으로 60년대의 농약의 폐해를 파헤쳐 세계인에게 충격을 안겨준 바 있는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에 필적할 만한 역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광우병의 위협으로 이미 유럽인들의 식습관에 변화가 일고 있다. 채식주의자가 증가하고 식품산업은 '유기농'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식물성식품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이들도 대량생산과정을 거치면서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유전자변형 식품이나 농약에 찌든 식품 등에 대한 논란이 그 증거이다. 자연스럽지 못한 성장속도조작이나 생산량조작은 지속가능하지 못한 생산양식이다.

금번 가축대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당장 축산농가를 살려내고 잘못된 사

료문제도 바로잡아야 하지만 차제에 우리나라의 안전한 먹거리 자급책, 친환경적인 생산양식 그리고 건전한 식생활문화 확산책 등이 통합 검토되어야 한다. 그래서 환경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그리고 국민의 건강도 지키는 일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금번 가축대란의 재앙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